

# 창업관련 개인적 특성변수와 심리적 요인들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김영부  
동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business start-up related perso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satisfaction of business start-up

Young-Bu Kim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TongMy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창업가가 가지는 창업만족도에 있어 제도적 지원 보다는 창업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별 변수가 창업가의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된 창업성과인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변수 외에 심리적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심리적 요인은 창업을 통한 일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 경제적인 고용안정 및 소득 요인의 만족, 창업의 가치성 부분인 개인의 발전가능성, 자율성, 사회적 평판으로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부산 지역 내 최근 3년간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창업가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변수와 창업만족도와 더불어 심리적 요인과 창업만족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여 의미 있는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본 연구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재무적 지표와 기술력 확보 등 기업 역량변수를 포함한 연구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of entrepreneu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ial firms. For this purpose, we tried to derive the psychological factors besides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entrepreneurs as the factor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which is the result of much research. Psychological factors were empirically analyzed by satisfaction with job and work environment through entrepreneurship, satisfaction with economic employment stability and income factors, and individual development potential, autonomy, and social repu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ample consists of entrepreneurs who have been engaged in entrepreneurship activity in Busan for 3 years. Through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hypotheses about entrepreneurship satisfaction were verified and meaningful results and implications could be derived. Based on this, it can be extended to include research on firm capacity variables such as financial indicators and technological power that were not reflected in this study in the future.

**Keywords** :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Psychological factors, personal characteristics,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Corresponding Author : Young-Bu Kim(TongMyong Univ.)

Tel: +82-51-629-3803 email: ybk@tu.ac.kr

Received November 27, 2018

Revised (1st December 26, 2018, 2nd January 15, 2019)

Accepted February 1,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창업의 성공률은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적인 통계에 따르면 5% 미만으로 아주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고도의 지식기반 시대와 글로벌 경쟁 시대가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다변화하고 있으므로 창업기업의 성공 확률을 높혀 나가는 노력 및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기의 침체, 청년 고용을 저하 등으로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증진 지원사업 및 창업지원정책이 장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 고객들의 욕구 다양성, 기술 변화의 가속화, 젊은 세대의 자기 사업에 대한 욕구 증가, 조기 퇴직자 및 여성들의 사회 재진출 확대, 청년 창업의 지원 장려 등으로 창업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OECD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주요 회원국들의 기업 규모와 운영 연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작은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도 창업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에 주력하는 5년 이하의 작은 기업들은 전체 고용 비중이 18%에 불과했으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비중이 47%로 나타났다[1]. 그동안 정부 정책의 노력에 따라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과 과학 및 기술 인프라라는 양호한 수준으로 향상되는 등 우리나라의 창업여건도 크게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창업에 대한 태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창업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이뤄야 하지만, 한정적인 자원으로 경쟁체제에 몰입해야 하고 조속한 성공을 위해 시간적으로 다급해진다. 이러한 경우, 특히 내부 자원 중 어떤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창업의 성과를 도출해 나가는데 노력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 준비기간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도 들어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도 창업실태조사에서 지난 7년간 창업한 국내 6,500개 기업들의 평균 준비기간이 10.5개월이었으며, 84.4%가 순수하게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지원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기업이 85.5%로 나타나 지원정책의 효과성이 창업기업에 잘 받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제도적 장치 및 지원보다는 창업기업의 특성별 변수가 창업성과인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증분석을 통한 성과분석에 임하고자 한다. 즉, 창업관련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개인적 특성변수 및 심리적 요인인 일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 경제적 만족, 그리고 창업의 가치성에 대한 사회심리적 만족 변수를 토대로 창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최근 3년이 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분석

### 2.1 창업만족도 연구

창업은 ‘새로운 업을 만드는 일’로 기회를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활동이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투입하고 핵심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관리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창업성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창업의 성공 여부가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다.

기존의 창업성과와 관련된 선행논문들을 살펴보면 창업자의 경험, 학력, 동기 등을 배경적 변수로 구성하여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측정하거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며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매우 적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창업만족도를 창업성과로 대체하는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 창업 초기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정량적 지표를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매출액이나 수익률 등의 객관적 성과를 측정하기도 하며, 기대달성 여부, 만족도 등과 같은 주관적 성과를 통해 측정하기도 한다[2].

즉, 창업만족도를 경영성과나 창업성과, 조직유효성의 종속변수나 요인으로 두고 분석을 하고 있다[3]. 창업성과 관련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창업성과를 창업만족도라는 비재무적 지표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2 창업관련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요인 연구

창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한 원인은 벤처 붐에 따른 창업 성공모델의 등장과 기술혁신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창업기회의 증가, 그리고 창업을 통한 자기개발과 성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 창업과정에서의 비용의 절감과 창업을 통한 성공률 향상 등이라 할 수 있다.

심용호 외[2]는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가의 능력, 이전 경험이나 기술 보유 등 창업기업의 특성과 관련있는 개인적 특성변수들이 창업의 성공요인으로서의 우선순위가 낮은 변수임을 검증하였다. 반면,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중 연령이나 학력 변수는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결과들도 있다. 그 이유는 창업의 속성상 연령층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창업가의 역량 변수가 학력보다는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창업의 실제 특성상 창업의 실패확률이 높으므로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이 곧 생업이므로 창업 성공의 의지가 높을 것이며, 학력의 경우도 정보자료의 습득 방법이나 지식체계가 형성되는 정도가 높을 것이므로 창업성공에 정(+)의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창업연구들은 개인적 특성변수 외 기업가정신이나 환경자원, 창업가 역량, 조직문화 등을 통한 연구 분석이 진행되어져 왔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1. Preceding Studies on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Researcher	Subject of Research	Research Abstract
Gu Eon-Hwae (2006)	Local ventures in Daegu, Gyeongnam, Gyeongbuk areas	An empirical analysis performed, after controlling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venture firm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entrepreneu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growth variables.
Gang Seong-II (2006)	Owners of companies in Jeju or tourism companies in Jeju	Empirical analysis among self-employers' personal characteristics, business environm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from a more integrated perspective
Kang Tae-Hun (2011)	CEO of franchise company in Korea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CEO's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Researcher	Subject of Research	Research Abstract
Kim Kyung-Ae (2013)	Desert cafe owners in Busan and Gyeongnam areas	Research on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innovation, initiative, and risk-sensitivity) on entrepreneurship satisfaction, and how the satisfaction effects the suggestion attitude of entrepreneurship
Won Hye-Sook (2014)	CEO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apital (network, trust, norms) in business performance

Source : S. H. Lee, G. S. Ha[3]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창업성공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변수 외에, 창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인 일과 근무환경 만족요인, 경제적 만족요인, 가치성(사회심리적 요인 포함)으로 구분하여 창업성과인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창업가정신과 많은 연관을 하고 있다. 창업가정신은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업가의 혁신적, 진취적, 위험감수성에 따른 사고방식과 행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창업가정신은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창업가정신이라는 정신 및 행동이 기업성가로 귀결되는 전체 과정 혹은 현상을 '창업가적 과정', 또는 '창업가적 현상'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3].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가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밝혀진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주요 연구는 모호함에 대한 인내, 자기 확신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내부적 통제위치 등을 주요 특성으로 파악했으며, 성취욕구, 자율성, 참을성, 독립성 등의 영향력을 분석하기도 했다[4].

Table 2. Preceding Studies on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Charcteristics	Researcher	Cont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ho Hyung-Ryae(1995)	Desire to achieve, patience on adventures, risk-taking attitude, control factors
	Lee Chang-Su, Jang Su-Duk(1998)	Desire to achieve, risk-taking attitude
	Kim Gyung-Sik (2005)	Achievement capacity propensity
	Lee Joo-Sung, Kim Young-Tae (2005)	Proneness to dangers, desire to achieve
	Jang Su-Duk et al. (2008)	Character of desire to achieve

Characteristics	Researcher	Contents
Competence Characteristics	Lee Jang-Su, Jang Su-Duk (1998)	Business goals, vision
	Lee Hyun-Suk, Lee Jang-Wu (2004)	Cognitive abilities, impression management
	Kim Kyung-Sik (2005)	Entrepreneur's expressiveness, social perception ability, social adaptability
	Lee Yoon-Jae (2006)	Recognition of opportunity, ability to present vision, social capabilities, network capabilities
	Kim Chun-Kun (2014)	Technical competence, strategic thinking ability, organizational capacity
	Lee Chang-Young (2016)	Achievement capacity, technical competence, social competence, organizational competence, strategic thinking ability, creative competence

Source : C. Y. Lee[5]

조형래[6]는 창업가의 경력특성과 심리특성, 행태특성 등이 벤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경력특성 중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력과 유사 사업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경험, 창업경험 등의 기업운영경험과 성장경험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심용호 외[2]는 ANP(Analytic Network Process)분석을 통해 창업의 성공요인 분석의 결과, 창업 기업의 인력구성 및 전문성,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전략,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 창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조직의 문화 순으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상화 외[3]는 창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실증을 통해 확인함과 동시에. 창업가의 혁신적, 진취적, 위험감수성에 따른 사고방식과 행동인 창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은 창업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 3.1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창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창업성과인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변수 외에 심리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심리적 요인은 창업을 통한 일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 경

제적(고용안정 및 소득) 요인의 만족, 창업의 가치성(개인의 발전가능성, 자율성, 사회적 평판)으로 구분하였다. 즉,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변수와 심리적 요인관련 변수들이 창업성과인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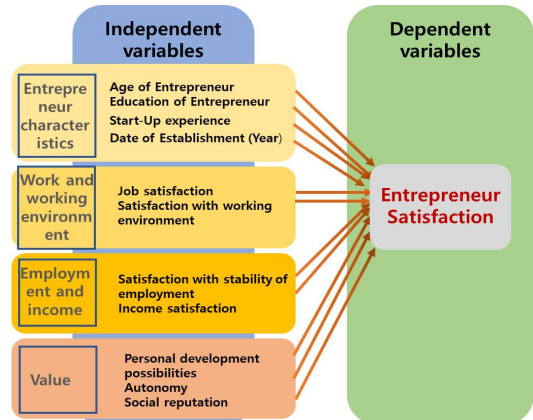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먼저, 기업이 역량이라 할 수 있는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변수는 창업가 연령, 학력, 창업기업의 설립년도, 이전 창업경험으로 4가지 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들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는 변수들로 나타났지만, 창업자들이 1-3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을 볼 때, 연령층이 높을수록 생업으로 창업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경륜을 가진 자들로서 젊은 층에 비해서는 창업역량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정보에 대한 수집능력과 네트워크 및 마케팅을 상대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창업 설립년도가 경과할수록 제도적 지원을 많이 받는 루트를 찾을 수 있다는 점과 창업경험자 일수록 이전의 실패를 경험으로 새로운 창업에의 도전에 실패할 확률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구성하였다. 그리고 일과 근무환경요인으로는 창업 후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와 근무환경의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고용 및 소득요인에서는 창업 후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 창업후 현재 소득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창업의 가치성으로는 창업을 통한 개인의 발전가능성, 자율성 정도, 그리고 사회적 평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하였다.

창업성과인 창업만족도는 창업을 통한 현 시점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변수의 정의를 통

해 창업관련 심리적 요인이 창업성과 즉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부산지역 내 최근 3년 이내 창업가 131명(131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에 임하였다. 설문항목은 리커트 5점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PASW 18.0을 사용하였다.

### 3.2 가설의 설정

#### 3.2.1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만족도(성과)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변수와 창업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최근 들어 긍정적인 영향력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개인적 특성변수인 연령, 학력, 설립년도, 창업경험을 토대로 이들 개인적 특성변수는 창업만족도(성과)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창업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가설 1]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변수인 연령, 학력, 설립년도, 창업경험은 창업만족도(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2 창업의 심리적 요인과 창업 만족도(성과)

창업의 심리적 요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창업가의 역량변수로서 일부분 다뤄진 것을 재분류하였다. 이에 일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고용안정과 소득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창업의 가치성으로 개인의 발전가능성, 자율성, 사회적 평판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일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동기부여요인으로서 창업은 본인이 원하는 사업아이템을 기반으로 하기에 일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창업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위생요인으로서 불만족 동인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창업의 특성상 창업가가 원하고자 하는 일을 주어진 환경에서 진행해 나갈으로써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가설 2] 창업가의 일에 대한 만족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은 창업만족도(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창업의 경제적 요인은 창업가들이 창업성공을 위한 심리적 부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창업을 함으로써 창업가에게는 고용안정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점과, 창업을 통한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만족감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제이다.

소득과 고용안정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 창업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최근 3년 이내 창업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가설 3] 창업가의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과 소득에 대한 만족은 창업만족도(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의 가치성이란 창업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는 것으로 여기서는 창업가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창업이 개인의 능력발휘의 계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율성이란 창업기업의 특성이 수직적 통제구조가 아니라 창업의 목적에 맞게 모든 조직 내 업무가 자율적으로 진행되므로 창업을 통한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평판은 창업을 도모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긍정적 과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적 평판에 대한 기대심리가 긍정적임을 말한다.

[가설 4] 창업가의 개인발전의 가능성, 자율성, 창업의 사회적 평판은 창업만족도(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실증분석 및 가설의 검증

### 4.1 조사설계 및 표본의 특성

부산지역 내 최근 3년간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창업가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창업의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요인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 설계이고 설문문항 구성은 표 3과 같다.

Table 3.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variable	Question Cont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ge	What is your age?
	Education	What is your academic background?
	Start-Up experience	Previous experience in entrepreneurship?
	Date of Establishment (Year)	What is your establishment year?
Psychological factors	Job satisfaction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work since you started?
	Satisfaction with working environment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work environment since you started?
Economic factor	Satisfaction with stability of employment	What is the stability of employment after the start-up?
	Income satisfaction	What is your current income satisfaction?
Value factor	Personal development possibilities	Do you think the individual's chances of development have increased since the start of the business?
	Autonomy	How is the autonomy of organizational activities through start-up?
	Social Reputation	What is the degree of social reputation for entrepreneurship?

설문조사는 2018년 6월에 실시하였으며, 창업기업 리스트는 부산지역내 창업관련 기관교육을 졸업하거나 창업관련 기업지원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립년도 확인 절차를 통해 유효 표본을 구성하였다.

본 표본의 특성을 2018년도 창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법인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창업만족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개별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를 먼저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수간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다공선성 문제나 허위적 관계를 점검한 후, 창업의 개인적 특성변수 및 심리적 요인이 창업만족도(창업성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력의 크기는 어떠한지 파악하기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Table 4. Properties of Sample

Property	Type	Frequency	Percent
Company Type	Corporate	26	19.8
	Individual	105	80.2
Business Field (Industry)	Manufacturing	34	26.0
	Construction	5	3.8
	Wholesale and Retail Trade	32	24.4
	Transportation	4	3.1
	Hospitality and Dining	3	2.3
	Publishing and Communication Services	19	14.5
	Science and Technology Services	11	8.4
	Business Infrastructure/Support Service	4	3.1
	Educational Service	12	9.2
	Arts, Leisure-Related Service	4	3.1
Age at Start-Up	Other Personal Services	3	2.3
	20s	29	22.1
	30s	76	58.0
	40s and up	26	19.9

#### 4.2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창업관련요인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다. 종속변수인 창업에 대한 만족도는 3.65점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양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창업가의 연령은 평균 35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창업가의 학력수준은 대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립년도는 2014년보다는 2015년 창업가가 다소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창업경험은 첫 번째 창업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일에 대한 만족도는 3.71점으로 나타났고, 근무환경 만족도는 3.56점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창업 후 자기 업무에 대한 충실도가 근무환경의 만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3.37점으로 나타났고,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3.29점으로 나타나 창업가들의 특성상 경제적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일과 근무환경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Individual Variables

Variable	Average	Standard Deviation	N
Satisfaction with Start-Up	3.65	.831	131
Age of entrepreneur	35.00	6.819	131
Collaborative strength of entrepreneur	2.94	.918	131
Start-Up experience	1.2901	.45554	131
Date of Establishment (Year)	2014.70	.653	131
Job satisfaction	3.71	.881	131
Satisfaction with working environment	3.56	.929	131
Satisfaction with stability of employment	3.37	.923	131
Income satisfaction	3.29	.957	131
Personal development possibilities	3.66	.925	131
Autonomy	3.68	.939	131
Social reputation	3.55	.905	131

가치성부분에서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3.66 점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율성에 대해서는 3.68 점, 그리고 사회적 평판은 3.55점으로 각각 평가하고 있다.

이어서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호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두드러진 특징은 창업가의 연령과 학력수준, 창업경험, 설립년도 등 개인적 특성변수는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심리적 요인구성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 창업자의 학력과 자율성과는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의 개인적 특성변수들의 관계가 미비한 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심리적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 간에는 주관적 심리적 만족도가 주요 변수들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상관관계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구성되고 있다. 단, 자율성과 개인의 발전가능성은 일에 대한 만족도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중선성의 우려 등 해석상 유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4.3 다중회귀분석

영향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창업만족도(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Individual Variables

Variable	SwE	AoE	EoE	SUE	DoE	JS	SwWE	SwSE	IS	PDP	A	SR
SwE	1.000											
AoE	-.008	1.000										
EoE	.093	0.21	1.000									
SUE	-.074	0.82	-.123	1.000								
DoE	-.024	-.105	-.043	.060	1.000							
JS	.868 ***	-.069	0.73	-.057	.089	1.000						
SwWE	.836 ***	-.015	.104	-.118	.026	.784 ***	1.000					
SwSE	.714 ***	-.117	.036	-.077	.046	.674 ***	.802 ***	1.000				
IS	.603 ***	-.133	.073	-.053	.102	.630 ***	.688 ***	.826 ***	1.000			
PDP	.886 ***	-.027	.121	-.077	.024	.861 ***	.822 ***	.716 ***	.641 ***	1.000		
A	.870 ***	-.066	.147 *	-.123	.069	.900 ***	.783 ***	.646 ***	.618 ***	.894 ***	1.000	
SR	.831 ***	-.042	.050	-.035	.045	.780 ***	.726 ***	.710 ***	.641 ***	.755 ***	.807 ***	1.000

\*\*\* p<0.001, \*\* p<0.01, \* p<0.05

SwE	Satisfaction with Entrepreneurship
AoE	Age of Entrepreneur
EoE	Education of Entrepreneur
SUE	Start-Up experience
DoE	Date of Establishment (Year)
JS	Job satisfaction
SwWE	Satisfaction with working environment
SwSE	Satisfaction with stability of employment
IS	Income satisfaction
PDP	Personal development possibilities
A	Autonomy
SR	Social reputation

회귀모형의 전반적인 유의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F값을 보면 81.144로 나타났고, 유의수준 0.001로 나타나 다중회귀모형의 유의성은 검증되었다.

또한 종속변수의 총 변량 중 회귀모형이 설명하는 변량의 비율을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882로 나타나 개인적 특성변수와 심리적 요인들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산권을 대상으로 한 사례이며, 창업만족도 변수가 비재무적 지표로 활용하였지만, 주관적 심리적 요인을 객관화함으로써 만족도라는 성과를 측정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은 VIF값을 분석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nificance Level
	B	Beta		
(constant)	157.394		1.906	.059
Age of entrepreneur	.002	.017	.511	.610
Education of entrepreneur	-.001	-.001	-.022	.983
Start-Up experience	.007	.004	.121	.904
Date of Establishment (Year)	-0.78	-.061	-1.903	.059
Job satisfaction	.209	.221	2.794	.006
Satisfaction with working environment	.193	.216	3.157	.002
Satisfaction with stability of employment	.045	.050	.684	.495
Income satisfaction	-.107	-.124	-2.147	.03
Personal development possibilities	2.74	.304	3.720	.000
Autonomy	0.56	.064	.665	.508
Social Reputation	.246	.268	4.483	.000
R-square value	.882		F Value 81.144 (p=0.001)	

**4.3.1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변수와 창업만족도(성과)**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변수로는 연령, 학력, 창업경험, 설립년도를 회귀모형에 포함되었다. 나타난 결과는 이들 4개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설립년도는 P=0.059로 나타나 약간 낮은 유의미한 결과(p<0.1)를 가졌다고 볼 수 있으며, =.061로 나타나 영향력은 낮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변수가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창업만족도가 개인적 특성 변수 외의 여타 다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3.2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과 창업만족도(성과)**

본 회귀모형에서 개인적 특성 변수 외에 심리적 요인을 3가지 유형화하고, 7개 변수를 포함한 결과, 일에 대한 만족도, 근무환경 만족도, 소득 만족도, 개인발전가능성, 사회적 평판 변수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일에 대한 만족도는 p=0.006의 유의미한 결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221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체가 곧 창업가의 아이টে임을 기반으로 이뤄지므로 자신에 대한 책무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일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근무환경의 만족도는 창업의 경우는 일반 근무환경과 달리 자신의 여건을 반영한 근무환경을 창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p=0.002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216으로 나타나 창업가들의 근무환경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창업만족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일에 대한 만족과 근무환경 만족은 자신이 창업한 업무와 기업에 대한 책무를 반영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서 고용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은 창업만족도에 유의미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즉, 창업에 대한 고용안정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 가정했지만, 창업의 속성장 고용안정에는 시간적 경과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p=0.034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124로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창업기업의 재무적 특성상 소득의 만족도를 이끌어내는데 아직은 한계 요인이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기업경영의 부담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가치성을 반영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개인의 발전가능성은 p=0.000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304로 나타나 창업관련 변수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창업에의 기대감이 강한 창업가들의 자기발전성을 매우 중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창업 만족도를 형성하는 중요 요인이므로 창업 성공에 대한 마인드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율성은 일련의 조직사회에서의 통제와 구속성을 벗어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창업기업의 특성상 정상적인 조직운동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자율성의 정도와 창업 만족도의 유의미한 결과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평판은 창업을 통한 사회적 호응적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이라는 도전가적 정신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우호적일수록 창업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0.000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r = .268$ 로 나타나고 있다.

#### 4.4 가설의 검증결과 요약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변수, 심리적 요인들이 창업 만족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들은 아래 표 7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Table 7. Hypotheses Test Results

Type	Hypothesis	Accept /Reject	Selection Variable (+Reasons)
Hypothesis 1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will affect the Start-Up satisfaction	Reject	Date of establishment (based on $p < 0.1$ )
Hypothesis 2	Job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working environment will affect the Start-Up satisfaction	Accept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working environment
Hypothesis 3	Satisfaction with stability of employment and income satisfaction will affect the Start-Up satisfaction	Conditionally Accept	Income satisfaction (-effects)
Hypothesis 4	The value variables of entrepreneurship - possibility of personal development, autonomy, social reputation - will affect the Start-Up satisfaction	Conditionally Accept	Personal development possibilities Social reputation

### 5. 결론

창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형성되지만, 지원정책에 참여하거나 교육을 받은 창업가들의 비율이 높지 않다.

이들 창업가들을 교육자원 사업으로 참여시켜 활성화 하기 위한 창업교육만족도 연구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창업성과를 도출하는 동인을 발견하고자 그간 많은 연구가 진행된 창업가 특성변수 외에 창업가들의 심리적 특성변수인 일과 근무환경 만족, 고용안정 및 소득의 만족, 가치성으로서 개인발전 가능성, 자율성, 사회적 평판변수를 토대로 창업 성과를 만족도를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고 이에 나타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변수는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유의수준의 기준을 넓히면 설립년도 변수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창업기업이 오래될수록 창업을 통한 정상적 경영과 운영이 가능해 진다는 점을 반영한다.

둘째, 심리적 요인으로서 일에 대한 만족과 근무환경 만족은 창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창업가의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전공 또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창업은 창업가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요인은 소득만족도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어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창업기업이 정상적인 매출이나 실적을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변수는 시간적 제약이 작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창업가들이 기존의 안정적 조직에서 퇴직한 경우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경제적 측면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가치성 요인은 개인발전의 기대감과 사회적 평판이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창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및 정부정책의 강화 등이 창업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 변수로 나타났기에 창업자들은 창업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자기 직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창업의 로드맵 구성 및 기획력을 발휘해 나가는 창업교육 및 창업 전략이 보완됨으로써 개인적 발전요인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향후 연구는 창업관련 창업가 특성을 보다 다양하게 포함해 나아가 할 것이며, 창업가의 대상 영역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수반되었지만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창업의 심리적 요인을 통한 만족도라는 성과도출의 영향분석을 시도한 점이다.

둘째, 최근 각 변수의 조절효과에 대한 박사학위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듯이 만족도 연구에서는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영

향력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요인 무엇이며, 창업가들이 인식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다 극명하게 분석가능하리라 본다.

셋째, 현재 비재무적 지표를 통한 성과를 창업 만족도로 창출하였으나, 재무적 지표 즉 매출액이나 특허 및 기술력 확보 등 기업의 역량변수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창업기업의 기본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정밀한 연구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Y. J. Lee and others, "Actual condition of global start-up and strategic development pla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Research Report(2016-788), pp.126-130, 2016.
- [2] Y. H. Sim and others, "Study on the Perception Gap between Technology Based Entrepreneurs and Startup Facilitators about Success Factors for Startu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0, No2, pp.43-57, 2015.
- [3] S. H. Lee, G. S. Ha,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low Experie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0, No5, pp.137-150, 2015.  
DOI: <https://doi.org/10.16972/apjbve.10.5.201510.137>
- [4] Sexton, D. & N. Bowman,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0, No5, pp.129-140, 1985.  
DOI: [https://doi.org/10.1016/0883-9026\(85\)90012-6](https://doi.org/10.1016/0883-9026(85)90012-6)
- [5] C. Y. Lee, "(A)study on improvement methods and influencing factors analysis for overcoming the Death-Valley of technology-based start-up", Chungang University doctorate thesis, pp.45, 2016.
- [6] H, R. Jo,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product innovativeness and venture firm performanc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octorate thesis, pp.85-118, 1995.

김 영 부(Young-Bu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한국해양대학교 통상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 2002년 3월 ~ 2012년 8월 : ㈜마린소프트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 2012년 9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2013년 6월 ~ 2018년 12월 : 동명대 LINC+사업단 기업협업센터장

<관심분야>

IT정책, 산학협력, 기술경영, 지식재산권, 기술사업화